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모습이 있는 것은 지혜가 없다

철야정진법문 ⑦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좋은 것이, 그러면 내가 갖고 이 생각 자연히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어찌 저녁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죽 해서 몇 가지를 알아버려,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서 대도 성취합니다. 대도 성취, 어떤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아, 견성이라는 건 판데 이상야릇한 뜻이 있고 어찌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벌써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장애물이 딱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차차 알아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육체는 자체성이, 자체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육체 뿐인가? 아니에요. 이 지구 위에 술한 물건들이 있어요. 나무나 뿔이나 이런 무장물이에요. 지혜가 없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하고, 여러분 지구,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를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의지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면 참 거룩한 자입니다. 믿어야 된다면 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구 지혜 없습니까. 만약 지혜가 있다면은 지구 위에서 무슨 폭탄 무슨 폭탄이, 난 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통통 터지고 이러는데, 부회(화)가 나서 흔들 흔들 해 버릴 겁니다. 하나 모습이거든요. 지구도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거 하나의 모습이라.

그러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모습이라. 모습 이니까 지혜가 없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 이걸 슬기 자라다 이걸 알았으니까 지혜가 없다. 지구도 하나의 모습이니 지혜가 없어. 그러면 지구뿐인가? 우리가 태양의 혜택을 얼마나 받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이번 신문에 보니 핵전쟁으로서 소련하고 미국에서 해결하자 했는데 소련에서 반대했거든요만. 반대 했는데 만약 핵전쟁을 일으킨다 할 것 같으면 이 지구가 백도가 된답니다. 백도 이상 된답니다. 백도 이상 된다면 우리는 얼어버립니다. 공포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태양 역시 자체성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떤 거야도 지혜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있는 것, 사람 몸

뿔이 이거 모습이거든요. 상이거든요. 우리말로 모습, 이거 지혜가 없죠? 지구도 지혜가 없죠? 태양도 없죠? 거슬러 올라가서 부처님 몸뿔어리,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 몸뿔어리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은 생겨, 나타나, 나타났으니 비롯이 있어. 나타났으니 나중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변하는 거예요. 이 태양도 지구도 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뿔인가 어디 변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변해 가.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떤 거든지 생긴 겁니다.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끝 조짐이 있어. 없어져버려, 우리 몸뿔어도 반드시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실다운 것이든 실답지 않은 것이든 이거 있습니다.

“

몸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단지 관리인일 뿐이다.

태양도 지구도 우리의 몸도

지혜가 없음을 알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몸뿔어리, 지금은 다 살아 있지만 오랜 세월이 가서는 나중에 죽어버려, 생겼으니까, 어머니에게서 났으니까. 그다음에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말 하나 할 것 같은지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사람뿐 아니라 어떠한 거라도 말이죠. 화분의 꽃도 그렇고 한 그루의 나무도 그렇고 사람의 모습도 사람도 반드시, 모습이랄 말이지. 이것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전부가 모습 있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로 이런 얘기를 종종 내가 합니다. 종종 하는데 실로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알아, 학교에서 선생이 말해 주면 글 따라 읽어, 따라 읽는 그 글은 알아, 알지만 그 의미는 실감이 안 나듯이 말이지 이런 분

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실로 알고 보면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태양도 지구도 우리의 몸뿔어리도, 집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몸뿔어리 지혜가 없다. 이렇게 안 다 해서 나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알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또 사랑해야 돼. 젠장 작용하는데 왜 사랑을 안 해요? 또 미운 것 있으면 밟고도 해야지, 다 작용인데, 본래의 진짜 내의 작용인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문제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해 나가면서 우리가 불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입니다. 절대 과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서 과학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과학이 아니면 나도 말 안 할랍니다.

그러하니 어떠한 거든지 모습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일일삼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서 틀리다 할 것 같으면 안 믿어도 좋습니다만 모습에는 지혜가 없다. 나도 모습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그러하니 눈이 안 떠 다 귀가 안 듣는다는 헛바닥이 맛깔을 볼 줄 모른다 이 말이 딱 맞거든요.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시간에 만 말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도 도대체 이것부터 해결 안 하는 것은 불문에 못 들어가 는 겁니다. 사도는 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습 놀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불상 모시고 있습니다만 삼십이상 팔십중후가 전 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차차차 차 문제 나오니까. 그 모습, 이걸 갖다 진짜로 알게거든요. 그걸 진짜로 아니 내 몸뿔이 이것도 진짜로 알지 않겠어?

여러분들 단단히 알아 두세요. 보통 우리 몸뿔이 이걸 소유물로 알아요. 관리물이 아니라서 아니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왜 내 몸뿔어리 내 소유물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말로 여러분의 몸뿔이 여러분의 소유물로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有와 無 극단 넘어 중도를 택해야

4-6 귀경례

더욱 직접적으로 사회의식(社會意識)이라고 하여도 좋은데 이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두 극단에 떨어지게 쉽다.

두 가지 극단이라고 한 것은 유(有)와 무(無)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固定觀念)이다.

신(神)이, 하나님이나 있다느니, 우리에게 불멸의 영혼(靈魂)과 같은 것이 있다느니 하는 유(有)의 관념과 이를 부인하는 아무것도 없다,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무의 관념이 언제나 우리 내부에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운명론을 유발하고 드디어는宿命론(宿命論)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껏밥이나 만지고 앉았지, 인간의 노력 정진이 관여할 틈을 찾을 수 없다. 또 무의 관념에 고착(固着)되어 버린다면 허무의식(虛無意識)만 곱팡이처럼 번식해서 퇴폐에 흘러, 매사에 되는 대로 흥청거리게 되고, 부모고 형제고 애고 아랑곳 할 바 아니므로 잔뜩 예고 이스틱하게 멍쳐버려 사회는 아귀다툼의 수라장화(修羅場化)하고 질서가 아주 문란해진다. 사회는 무기력(無氣力)과 공포(恐怖)를 낳으면서 서서히 파괴되어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이변(二邊)의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라고 하여 반쯤만 있고 반쯤은 없다는 따위로 엉겨죽을 줄 다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공정성을 확고히 믿는 데서 대사회 건설이라는 보살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다. 대사회로서 중생과 더불어 중생을 위한 보살의 사업에 협력해 나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빛나고 우리들의 사회에도 아름다운 아침은 밝아 올 것이다.

이 중도를 지키는 것을 불교에서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여 정신(正信)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信心)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다음 두 개의 망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점이 불교가 휴머니즘과는 다르고 이를 경계하는 단적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잘 낳다, 내노라하는 자기중심(自己中心)에 빠진다. 이것은 이른바 자집(我執)인 것이다.

둘째는 내가 안 것이 제일이다. 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내세우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무조건 그러다 하고 부인하는 태도,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그것만 지상(至上)으로 섬기려는 외교집 같은 데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법집(法執)이다.

양대진영으로 나누어서 냉전으로, 또는 지역적인 제한 전쟁으로 점화화된 오늘날 세계의 정치적 양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야말로 불교의 입장으로 이를 법집(法執)의 상(相)이라고 일컫는데 주저치 않을 것이다. 제가끔 자기 자신을 이데올로기에 결박 지워 용신을 못하는 꼴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와 인류 장래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지 않는다고 장담들을 하는 것일까?

아집과 법집을 훌가분히 벗어던져 버리고 애착을 버렸을 때 무분별지(無分別

의 지위를 계승할 것이며 그 구세주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대희대사(大喜大捨)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위한다. 이 보살은 우리가 위로 부처님의 도를 넓히는 길이란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으로는 중생을 건지고 후진을 교화(教化)해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도를 연구하여 넓혀 나간다. 우리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마하살을 받드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

마하살(摩訶薩)은 마하 - 큰, 거룩한, 하는 데에 사쁘바가 붙어서 된 말로 거룩한, 큰 생명력 있는 어른이라는 뜻이다.

至心歸命禮海東教主元曉菩薩摩訶薩(一拜)

지성스런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여기서 절하는 것은 바로 이편의 우리 신라(新羅)에 나신 가르침의 주인 되는 어른 원효보살(元曉菩薩)이라는 분 앞이다. 이 원효보살은 부처님의 제자로 승보(僧寶)에 드는 분으로 앞에 나온 문수(文殊)·보현(普賢)·관세음(觀世音)·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의 각기 일면을 나타낸 상상의 인격(人格)들이지만 (定中の佛菩薩像) 원효보살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천삼백여년 전 신라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왜 이 분을 받들어 여기서 모시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이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여기 행원(行願)에서 논의하는 데는 우리나 남이나 그런데에는 상관 없이 다만 어떻게 하면 알뜰하고 참된 진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관점을 둔다. 원효보살을 여기 모시는데는 이에 대한 설명을 이분의 가르침에서 얻게 되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우주적이고 대사회적인 깨침이 부처님의 본 뜻에 꼭 결합(契合)하는 말씀이라 여겨지므로 이분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중도는 바른 믿음으로 공정성을 확고히 해서 대사회 건설하는 '보살의 길'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아집과 법집에 빠진다. 애착 버려 무분별지 얻으면 여래집에 태어났다한다

知)를 얻는다. 이것 저것 가릴 것 없이 분별을 다 초월하여 반야(般若)의 지경에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를 가리켜 여래가(如來家)에 태어났다고 한다.

여래의 집에 태어났다는 말은 이 세상을 건설 사람, 구세주(救世主), 이 세상을 건설 수 있는 아주 공정한 우주에 충만한 생명력을 잘 알아 가지고, 구세할 수 있는 여래의 집에 새로운 일원이 되어 태어났음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한다면, 공정한 우주의 생명력과 호응하는 대승(大乘)이며, 대사회성(大社會性)의 역사적 사명을 바르게 파악하여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그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람은 부처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3기)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환영

수련기간 2014년 3월 6일(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 ~ 5시) 2개월. 회비 30만원. 수료증 수여. 인원제한 있음.

수련학습 내용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펜링(행복감) 수련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휴전생과 카르마(자기동일성)의 영속성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이리타 히데오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와 견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등

「레이키(氣 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리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도량석, 중송
 - 예경: 칠경례, 오분행례, 각단 예불
 - 관공: 삼보통칭, 상단 중단 관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매불이운), 대령, 관옥, 옹호계 (신중작법39원,104원), 당일천도, 49세, 지정청, 시랑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명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리춤: 천수바리, 사다리나바리, 화의제바리
 - 나비춤: 오공양, 유원승, 요집작법
 - 사물: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특강: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의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강 주:** 석범은 스님
-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강식: 2014년 3월 6일(목요일)
 - 수업시간: 초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강료:**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영광교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상시모집
- 문의처:**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법.
- 장 소: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의: ☎ 02)393-8027

지도: 봉원사 법학장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